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1월 6일(금)
...(음력 9월 21일)..
Пятница
6 ноября 2020г.
№ 43 (11691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 주민들, 국민 단결의 날 기념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이전에 계획되었던 사할린주의 모든 축하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이 중 일부 행사가 온라인상으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장갑과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할린의 등대〉 경연 결과 발표가 이날 주요 행사가 되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시상했다.

경연 우승자를 위한 축하 공연은 온라인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15시에 유튜브와 사할린 ОТВ사할린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돼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 주 중심에서는 국민 단결의 날을 맞아 〈러시아, 시대를 날아오르다〉 사진전이 열렸다.

전 국민적 역사문화 기획으로는 러시아 전 지역의 매력적인 사진 여행을 제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 다양한 건축기술, 각 지역의 풍성한 문화, 역사, 정신적 유산을 볼 수 있다. 전시회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박물관에서 12시에 시작되었다.

또한 10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사할린주 민족 공공단체들 사이에 미니 축구시합이 열렸다.

민족 음식 지역 경연대회에는 스미르니흐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문화센터에서 11시30분에 개최되어 민족의 전통 음식을 준비한 다양한 민족 대표들이 참가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국민 단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기념일은 15년 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1612년 국가가 국난의 시기를 넘기고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국민의 단결이 필요했던 당시 민병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이후 러시아의 역사에는 수많은 굴곡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단결과 조국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드리워진 위험에 두려워 떨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단결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새로운 중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국가와 지역에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할린주의 모든 주민들은 공공의 일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에서 크게 기여한 단체와 주민들이 계십니다.

특히 국민 단결의 날을 맞이하여 〈사할린의 등대〉 경연대회를 열어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이미 우승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신뢰와 동향 주민들의 호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주변의 삶을 더 찬란하고, 더 개선되도록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이 높은 성과를 거두시고 항상 주변에서 지원과 지지를 받으시며,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 단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예산 643억 루블리를 삭감

2021년 사할린 예산이 2020년보다 643억 루블리가 삭감될 예정이다.

기획안에는 올해 사할린 정부 예산 수익은 1천732억 루블리가 아닌 1천80억 루블리에 달한다. 예산 지출 부분은 2020년 1천800 루블리 대비 2021년에는 518억이 삭감된 1천282억 루블리로 줄어든다. 손실은 러시아 여러 지역의 연간 예산과 대비된다. 지난 1년간 주 예산의 적자는 202억 루블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난 3년간 예산 적자는 55억 루블리를 넘지 않았고, 2017년에는 115억 루블리에 달했으나 이때 주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했다.

현재 주 정부는 154억 루블리를 차용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사할린주에 공공 부채로 60억 루블리가 생겼으나 이를 상환해갈 수 있었다.

2019년 예산안 작성 시에 누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정될지 예상을 못한 가운데 당시 정부는 2021년에 1천90억 루

블리의 수익을 얻고, 2022년에는 1천60억 루블리의 수익을 기대하며 차용과 적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예산은 균형을 이루었다.

앞으로 2주간에 국가 프로그램 각각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두고 주두마 담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보건 개선에는 2020년에 273억이 책정되었으나 2021에는 62억이 삭감된 212억 루블리가 책정되었고 교육개발에는 2020년 271억 루블리가 책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예정보다 3억이 줄어든 240억 루블리로 책정되었다. 주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 2020년에는 248억 루블리가 지출되었고, 2021년에는 예정보다 90억이 삭감된 157억 루블리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40억 루블리는 사회적 기관에 배당된다.

헌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우선 지원 대상인 아동과 자녀를 둔 가정 지원은 59억 루블리로 예정보다 37억이 삭감됐다.

주 예산안을 12월에 주두마 의원들이 심사하고 채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 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이산을 넘어 새로운 만남으로 -

2020년 11월 5일(목) 14시(한국 시간)에 사할린 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간담회 내용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포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 주최로 한국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KIN(지구촌동포연대)이 나섰다.

간담회는 KIN의 배덕호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적십자사의 관계부처 대표를 비롯한 사할린 동포(권경석 연합회장, 주훈준 안산회장, 문정현 인천회장, 박정자 김포회장), 사할린 한인협회(위임 참석: 이수진 남양주 회장), 임성숙(한림대학교) 교수 등 토론자만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중계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가르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요리교실 강사이며 메가팔라스 호텔 요리사 허은설현 선생님

사할린 한국교육원 요리교실 강사이며 메가팔라스 호텔 아시아 레스토랑의 한식 담당 셰프인 **허은설현** 선생을 소개한다. 사할린 주민들은 이 호텔을 드나들며 허 선생을 통해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한식을 즐기고 있다.

본사 **배순신** 기자가 이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63년생 57살이고 고향은 부산입니다. 남편과 아들 1명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조금 넘게 메가팔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허 선생님께서는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요?

- 제 이름이 조금 길어서 궁금해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난 후 하얀 천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시고 은과 같이 빛나고, 눈처럼 깨끗하고 착하게, 현명하게 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 아버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이름이네요. 선생님께서 이름처럼 그렇게 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요리교실 강사는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요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요?

- 2013년부터 요리교실을 시작했고 수업 방식은 한국 음식이지만 사할린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중심으로 국·찌개·찜·전·볶음 등 되

도록 손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는 음식은 자주 하기도 힘들고 교육원에서 배우는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배우고 싶은 음식을 위주로 될 때도 있고 제가 정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계절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요리교실 수강 신청을 하면 총5번 수업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600루블리 정도 재료비를 냅니다. 교육원에서 지원을 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본인이 만든 음식은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한국 음식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또 배우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때 요리교실을 잘 시작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김치축제도 진행하고 몇 년 전에 교육원에서 <세계인의 건강식 한식>이란 한국 요리 레시피 책자를 편찬하셨는데 허 선생님께서 주요 저자 중 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여러 레시피를 우리 신문에도 내기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수강생 중에서는 어떤 요리가 인기가 있습니까?

- 교육원 학생들은 잡채와 해물탕,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리를 만들 때 항상 만족해 한



것 같아요.

- 선생님께서 요리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따신 건가요?

- 네, 요리에 관한 공부는 한국에서 했고 관련 자격증도 한국에서 취득했습니다.

- 사할린이 선생님께 어떤 곳 인가요?

- 사할린에 온 지 벌써 18년 정도 되었는데 모든 면에서 바쁘고 빨리 돌아가는 한국에 비해 사할린은 자연도 좋고, 편안함이 있어서 제2의 고향같은 느낌으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게 휴식처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러시아 음식도 즐기셨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러시아 요리는요?

-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음식은 살라드 셀료드카 포드 슈보이(세레드카 под шубой, 삶은 채소/감자, 당근 등으로 덮인 절인 청어)

입니다.

- 사할린에서 사시면서 러시아 이름도 있으시죠? 로자(장미꽃)라고 알고 있는데요.

- 사할린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절 보더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이름이 필요하며 '로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사람들이 곧바로 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로자'가 뭘 말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절 그렇게 부르고 있기에 제 러시아 이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 현재 메가팔라스 호텔의 아시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거기 레시피는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 지금 일하는 아시아 레스토랑 레시피는 처음에 오신 한국 요리사분과 제가 함께 한 것도 있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저희 아시아 레스토랑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할인도 있고,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김치도 선물하며 김치로 만드는 여러 종류의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김치 체험도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설현 선생님을 직장에서 많이 존경한다. 메가팔라스 호텔 춘 알렉세이 총지배인은 (총 매니저) «로자 선생님이 항상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시고, 동료들을 잘 가르치시고 주방 분위기도 화목합니다. 허 선생님은 수준 높은 전문가이며 이분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인기가 많아요.»라고 강조했다. -기자주.)

- 선생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한식 중에 어떤 요리가 마음에 드시고 11월에 독자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요리는요?

- 저는 뜨겁게 끓여서 바로 먹는 전골과 얼큰한 소고기국을 좋아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질 텐데 매콤한 만두전골은 어떨까요?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격언(표현, 좌우명 등)이 있나요?

- 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고 성경구절(로마서12장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좋아하는 성격은?

- 저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을 좋아합니다.

- 좋아하시는 계절과 색깔도 궁금합니다.

-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단풍드는 가을을 좋아하구요.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와 요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아동들의 눈으로 본 러시아 항구도시의 삶 관람

사할린주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육자원센터가 <바닷가의 도시> 아동 창작미술 전시회 개최 추진에 협력했다. 이 전람회는 2014년부터 유엔총회가 정한 '세계 도시의 날'(10월 31일)을 기념하여 개최된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전시회 작업을 준비한 가운데 사할린, 무르만스크, 모스크바주, 캄차트카,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 지역의 아동미술학교와 예술학교의 미술부 학생들이 1999년- 2018년까지 다년간 완성한 24점의 회화, 그래픽, 구성 디자인으로 전시회를 구성했다.

6세-17세 연령의 학생 작품들은 국립문화원 사할린주 자원센터의 미술재단회에 있다.

어린 화가들의 작품들은 자연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도시와 바닷가 마을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아동들의 눈에 보인 일상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회는 도서관 일정표에 따라 운영된다.

Сахалинцы увидят жизнь портов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глазами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омог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движную выставку дет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ород у моря».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а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городов,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31 октября, начиная с 2014 года по решению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ыставка заработ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Ее сформировали из 24 живописных, графических и декоративных композиций, выполненных в разные годы (1999-2018) учащимися дет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школ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тделений школ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Мурманской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Камчат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ходятся в собран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ГБУК СОРЦ. Возраст авторов — от 6 до 17 лет.

Работы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охраняют натурные мотивы и пленэр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жизни приморских поселений и портов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смотреть на повседневные пейзажи глазами детей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смогут до 30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ыставка работает по расписанию библиотеки.

'부메랑' 클럽, 해양생태관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초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부메랑' 클럽이 해양생태관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장려금과 사할린주 관광청의 지원으로 <해양 친구: 극동>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세미나에서는 바다 표범과 고래 생태의 생물학적 특성, 해양 동물 관찰의 원칙, 과학적 연구를 돕기 위한 해양 동물 촬영법, 문제 있는 동물과 마주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한다.

참가자들은 세미나 진행자들과 함께 바다 표범과 고래 관찰로 해양 관광 진행과 조직 규정을 작성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며 11월 11일까지sakh.m.m.rescue@mail.ru로 신청서를 보내야 하고 신청서에는 참가자의 이름, 직업, 기관,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고 '부메랑' 측이 밝혔다.

"Бумеранг" приглашает на семинар, посвященный морскому экотуризму

14-15 ноября в клубе "Бумеранг" состоится семинар, посвященный морскому экотуризму.

Семинар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рузья океа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и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 семинара расскажут:

-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биологии и поведения тюленей и китов,
- о принципах наблюдения за морскими животными,
- как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чтобы помочь науч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 какие действия предпринять при встрече с запутанными животными.

Вместе с ведущими семинара участники разработают правила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морских туров по наблюдению за тюленями и китами.

Семинар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до 11 ноября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sakh.m.m.rescue@mail.ru. В заявке указывается ФИО, должность участника, организация (если применимо),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сообщали в "Бумеранге".

'로드니크', 사할린 식물원에 나무 심다

10월 31일 '로드니크' 환경보호센터는 '가즈프롬 유즈노 사할린스크 대륙봉 개발' 회사의 지원 아래 사할린 식물원과 공동으로 <자기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 '로드니크' 동료들과 '사할린 환경보호' 단체 활동가들 총 30여 명은 나무와 관목을 심고 식물원에 수집된 식물을 보존하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고무되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마가목, 배나무, 침엽수, 단풍나무, 황벽나무, 피나무, 여러 종의 자작나무, 자두나무, 들장미 등 총 60여 종의 수목을 심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이산을 넘어 새로운 만남으로 -

(1면의 계속)
세부적으로 간담회는 전해철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으로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발표한 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사할린동포 시행령 내용 및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이어 사할린동포 및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과 관련한 의견 개진 및 관계부처의 답변'에 따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우선 사할린동포 특별법안이 10년 만인 올 5월 26일 통과되어 사할린동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토론은 법을 넘어서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참석자 중 사할린동포 주훈준 안산회장은 영주귀국자 자녀들 모두 영주귀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고, 문정현 인천회장과 박정자 김포회장은 영주귀

국자에 사할린동포 확대 해석과 복수국적 허용을 요청하고, 사망한 1세의 자녀들의 영주귀국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이수진 남양주 회장도 발언을 이어갔고 사할린 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과는 온라인상으로 연결해 요청안을 들을 수 있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요청한 사항을 시행령 법안 마련에 감안하여 담도록 하겠다고 했다. 순조롭지 못한 실시간 방송이었지만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할린동포들이 바라는 바에 따른 시행령이 선포되고 시행되길 기대한다.

(본사기자)

아래에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준비하여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요청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점 재검토 요청문

지난 4월 2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던 날 밤, 사할린은 감격과 기쁨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발효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오늘의 사할린은 불안과 아쉬움에 잠들지 못합니다. 어렵게 제정된 이 법에는 '국가의 책무'가 세 가지나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우는 아이 달래듯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인 '영주귀국' 사업의 내용도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1세 당사자 또는 배우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외로운 귀향길을 선택한 우리의 부모는 4,400여명, 그 후로 부모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사할린에 남은 불효자들이 수천명, 할아버지, 할머니를 2년에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하는 손자들이 수천 명,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 쓸쓸히 노년을 보내는 1세 어르신들이 2,7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1992년 영주귀국 사업 초반, 잘못 끼운 첫 단추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미 불효자인 우리가 조금 더 불효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새 옷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러운 과거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을 되뇌이며, 사할린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아래 첨언합니다. 이미 제정된 7개의 조문을 지금 개정할 수는 없어도, 시행령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제2조(정의)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확대 해석

생년월일로 동포의 정의를 규정하고 세대를 구분지며, 귀환을 희망하는 수많은 동포들을 외면했던 30년 전의 영주귀국과, 직계비속 1인만을 '동반'가족으로 규정하는 오늘 날의 영주귀국은 비인도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항의 '사할린 동포'의 범위를 현재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며, 2항을 '동반'하여 귀국하는 '보호자'의 개념으로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즉, 현재 사할린 잔류 1세(약 530명)와 기 영주귀국자(약 2,700명)의 직계비속만 이 법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① **수교 이전 사할린에서 사망한 1세와 그의 직계비속** ② **수교 이후 영주귀국을 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1세와 그의 직계비속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합니다.

실제 강제징용 1세대는 대다수 1931년 이전 생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한 땀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길이 열리면 꼭 고향 땅에 가라"는 마지막 유언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래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영주귀국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는 자녀도 1명이나마 데리고 갈 수 있어졌지만, 안타깝게 스러져간 우리 대다수의 징용 1세와 그의 자녀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영주귀국 대상이 '생존 1세와 그의 직계자손'으로 국한된다면, 수혜자에게는 중복 혜택을, 비수혜자에게는 중복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상과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은 징용 1세대와 그들의 유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시오.

둘째, 제3조(국가의 책무) 제2항(피해구제)에 '피해보상'과 '법적 귀환에 관한 권리' 포함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한인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2005년부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문제해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사할린 잔류 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덕적, 물질적 피해보상 지급 및 우편저금 반환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문제해결** 지원이 명문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광복 직후 우리가 응당 누려야 했던 '거주지'와 '국적선택'의 자유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이나, 우리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국민을 데리러온 모국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국적을 갖고 싶은지 단 한번도 물어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국적 동포와 같이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 제출에 예외를 두는 등 **국적취득(국적판정 및 회복) 절차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거소신고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공관(사할린 출장소)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조(국가의 책무) 제3항(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의 현실성과 지속성 부여

현재, 사할린 한인에게 지급되는 행사 지원금 등은 모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명절행사 지원 등 단발성, 휘발성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에 남은 후손들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인류가 이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사할린 무연고 한인 추모관'의 선례와 같이 영리단체나 사업가가 우리의 비극을 사익화 할 수 없도록 운영과 운영주체에 대한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에 남은 후손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러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도 이 법을 통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될 때, 우리 한민족이 비로소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선진국가, 선진인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만 1천 여 사할린 동포를 대표하여 사할린한인협회장 박 순 옥

사할린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품에 1,830만 루블리 책정

러시아 정부는 국내 전 지역에 신종 코로나19치료를 위한 약품 구입에 예비기금에서 50억 루블리 이상을 책정했다. 약품들은 자택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 약품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할린주는 정부의 조치로 1천 30만 루블리를 받게 된다.

'이 질환에 걸려 중증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게 치료의 복합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정부 사이트에 공지됐다.

보건부 장관은 약품을 64만 명의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사할린주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4일(수) 105명으로 밝혀졌고 35명이 퇴원했다. 11월 4일 사할린의 총 확진자 수는 8324명, 5631명 퇴원, 3명 사망, 현재 2690명이 치료 중이라고 사할린주 정부 측이 밝혔다.

백김치, 배추김치 — 김치 매력에 푹 빠져

사할린에서 김치축제 개최



지난 10월 31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김치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 한국 교육원(원장 이병일)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규모가 크게 야외공간에서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관계로 초대받은 참가자 및 진행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체온도 측정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했다.

이번 참가자 중에는 러시아인, 한인, 부랴트인 등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참가자들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등이 환영 인사를 했다.

광기동 소장은 김치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사할린에는 러시아 분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 본적이 한국이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한국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러시아 음식에 한국의 김치나 한국 음식을 같이 즐기게 되어서, 사할린의 음식문화가 더욱 풍부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라며 "한국에서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김치가 많은데 사할린에서도 한국의 전통 조리법과 러시아 분들의 창의성을 더해서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사할린 김치 레시피를 여러분이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박순옥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시기에 뭉니뭉니해도 면역력이 필요한데 면역력을 높이는 김치를 만들고 건강합시다."라고 했다.

김치 담그기 체험은 사할린 한국교육원 요리교실 강사 허은설현 선생님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이날 두 가지의 김치를 해봤는데 우선 백김치, 다음 겨울 김장 배추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보았다. 주최 측에서 이날 절인 배추와 양념, 배, 대추, 파, 당근, 고추 등 김치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준 덕분에 한국식 김치 담그기 배우기가 쉬웠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밥과 보쌈, 갓 담근 김치와 같이 맛보며 참가자들의 기분이 상승되어 내년에도 같은 행사가 열리길 기원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ок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очередно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В условиях 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мероприятии с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н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Они узнали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вух видов кимчи: белой в рассоле и зимней традиционной, попробовали приготовить это собственными руками. Провела мастер-класс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и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госпожа Хе Ын Соль Хен.

Мероприятие как всегда прошло в теплой дру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Ничто так не сближает, как общая работа и совместная трапез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Кимчи» стали



Фото: Ли Е Си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Наш корр.

Когда слова попадают в самое сердце или Дистанционный юбилей думающей молодежи

На днях отгремела «XX Юбилей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Россия – Корея – СНГ» под девизом «Think! Imagine! Create!», объединившая ученых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с целью обмена уникальным опытом, творческими идеям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с 19 по 21 октября в уже привычном для многих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НТО «АНТОК» (Россия),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ТИНБО» (Узбекистан) и «КАХАК» (Казахстан),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МДКМ Павла ПАЯ, «это не первый совместный опыт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Многие члены МДКМ являются студентами, вовлеченными в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этому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с командой АНТОК вполне закономер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старались учесть широкий круг интересов аудитории и сделали программу конференции максимально разнообразной. Дни состояли из двух пленарных докладов, освещающих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в научной области; серии научных симпозиумов по отдельным нау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мероприятий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 тренинга или семинара от именитых профессоров.

«Такие тренинги – всегда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бщаться вживую, насколько это возможно через расстояния и экраны мониторов; задать возникшие вопросы и привести реальные примеры проектов», – считает президент «АНТОК» Дмитрий ЧО (Чо Гван Чун).

Гвоздем науч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л симпозиум по инновациям в образовании, освещающий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ики с акцентом на дистанционные формы обучения. Модератором секции выступил Николай Инсевич ПАК, дпн.,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интересно прош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симпозиумы по биотехнологиям, химии, инженерным наукам,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ИТ, истории.

Корреспондент газеты «РК» отметил выступление Любови Николаевны ЦОЙ, гендиректора Московской школы конфликтологии, руководител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оциология конфликта» Россий-



«XX Юбилей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Россия – Корея – СНГ» удалась!

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ологов. Ей с легкостью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атмосферу на 3-х часовом семинаре «Конфликты в жизни людей: технологии разрешения конфликтов». Тема вызвала необычайный интерес у искушенной аудитории и привлекл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к активному обсуждению.

Также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лся Alumni Networking Forum 2020 Russia – встреча выпускников Young Generation Forum & Young Professionals Forum 2010-2019.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 ученые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НТО «АНТОК» и форумы YGF&YPP повлияли на их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и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применения своих научных знаний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ектов,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НТО «АНТОК»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6-9 классов», «АНТОК IT-2020».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конференциях – это личное человеческое общение.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ынешняя юбилей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этого лишена, результаты онлайн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взошли все ожидания»,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ЧО.

Он с гордостью добавил, что «именно на эту XX юбилейн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более ста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студенты, и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и действующие ученые с мировым именем, собравшиес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Шри-Ланки, США и, конечно, из России». Мэтры науки с радостью делились своим бесценным опытом знаний как со своими коллегами, так и с пытливым молодежью, для которой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доставило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этот опыт перенять.

Артем БАЖОРА
Фото автор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Пхеньяне открылся музей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2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и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отметили 72-ю годовщину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был перв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мире, которое в 1948 году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ло молодую социалис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С тех пор прошл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накопилась богатая истор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днако, как известно, памяти свойственно забывать многие, в том числе и подчас важные моменты, которые в итоге могут кануть в небытие.

Хорошее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придумали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Пхеньяне, открыв музей посольства в здании консульского отдела. В музее собраны,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и выставлены на всеобщее обозрение образцы мебели, интерьера, предметы быта, канцелярские товары, оргтехника – все, что сохранилось с тех самых времен, когда в ноябре 1957 года в центре Пхеньяна появило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шей страны.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по сбору документов и фотографий, начиная с периода д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и этом очень ценн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ветераны дипслужбы, щедро поделившиеся сокровищами своих домашних архив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фонд музея посольства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ста экспонатов – от самой первой таблички, которая висела на дверях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а также выдававшихся дипломатам чemoданов, до парадного мундира Геро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ндрея Кар-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узея посольства: ленточку перерезает посол РФ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рядом дипломаты – 1-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Денис Самсонов (слева) и атташе Михаил Касцев (справа).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Пхеньяне

лова, который руководил посольством с 2001 по 2006 год.

В коллекции музея также более двух сотен редких фотограф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в хронолог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позволяя наглядно проследить историю развития посольства, а также трудовые будни дипломатов прежних времен.

У входа в музей, в фойе установлены неотъемлемые атрибуты любого совет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 бюст В.И. Ленина, над ним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знамя и портрет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ССР. Как отмет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это сдел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разу «помочь посетителям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тех далеких лет».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узея прошла 12 октября, а первыми посетителями стали дипломаты,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Ф, члены их семей. Об истории посольства лично рассказыва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 российском посольств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ать развивать и пополнять экспозицию и фонды музея посоль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Итоги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США повлияют на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Итоги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могут серьёзно повлиять на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В частности, изменения могут коснуться распределения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в РК, передач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и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в вопросах совмест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в РК, то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еих стран согласовали повыш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оли на 13% в этом году, однако из-з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ереговоры зашли в тупик. В случае его повторного избрания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затягиваться и дальше. Соперник Трампа – Джо Байден – напротив, не намерен тесно увязывать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с расходами на содержание войск. В случае его избрания,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расходов могу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ы быстрее, а вероятность сокращения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ША уменьшится. Эксперты прогнозируют, что в случае избрания Байдена, на передачу Сеулу опера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может уйти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Байден предъявляет выс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условиям передачи. При этом оба кандидата, вероятно, попросят РК поддержать США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Китаю.

ВОЗ: В КНДР не выявлены больные COVID-19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 выявлено ни одного больного COVID-19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ия в октябре 10.462 ПЦР-тестов.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ила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в своём еженедельном отчёте о ситуации с COVID-19 в мире. Данные отражают количество выявленных больных на 29 октября. При этом 5.368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мели подозрение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том числе, 8 иностранцев. В отчёте о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такж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период с 15 по 22 октября в изоляцию был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пределён 161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изолированных составило на 22 октября 32.011 человек. Ранее гла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ОЗ в КНДР Эдвин Сальвадор сообщал, что на 17 сентября на Север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3.374 теста на COVID-19. Спустя почти месяц эта цифра выросла примерно на 7 тысяч, что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быстр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вирус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ост тестирований обусловлен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Север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ест-наборов.

Экс-президент РК Ли Мён Бак снова заключён под стражу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Мён Бак возвращён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для отбывания наказания.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ах, Ли Мён Баку предоставлена камера площадью 13 кв. м., в которой он уже находился под стражей, а также отдельный надзиратель.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отбудет весь срок в следственном изоляторе, где условия содержания лучше, чем в тюрьме, учитывая возраст и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Экс-президент РК Ли Мён Бак приговорён к 17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и превыш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приговора Верховным судом бывшему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осталось отбывать 16 лет наказания. Ли Мён Бак будет освобождён в 2036 году, если не будет амнистирован.

В РК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пятиуровневая схе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нынешнюю трёхуровневую схему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обавив в неё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ровня с целью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ирусу COVID-19.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ой схемой,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новая схема состоит из следующих уровней: 1; 1,5; 2; 2,5 и 3. При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о повышении уровня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более строгие критерии, и решения по каждому региону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Новая схема вступит в силу 7 ноября. Для первого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суточный при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е должен превышать 100, 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30 случаев. Уровень 1,5 вводится, если среднесуточный при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превысит 100, не достигнув 200 случаев, 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10-30 случаев.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водится, если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будет от 200 до 400, 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от 30 до 60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 сутки. Уровень 2,5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случае суточного при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более 400 случаев, а третий уровень – более 800 случаев. Все объек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разделены на 9 типов «приоритетных» и 14 типов «обычных». К приоритетным объектам, относя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бары, клубы, караоке, 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рестораны и кафе. Обычные объекты включают интернет-кафе, свадебные залы, похоронные бюро, кинотеатры. Ношение масок обязательно во всех многолюдных местах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RKI)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К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30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К). Посол РК в Москве господин Ли Сок Пэ, который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е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является большим знатоком России и прекрасн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в эксклюзивном интервью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дал оценку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работе 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что корейцам нравится, а что нет при посещении РФ и когда Сеул вновь введет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россиян.

В каких сферах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ши страны добились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а по к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ка не смогли существенно продвинуться в развитии связей?

Ли Сок Пэ: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Россия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течение 30 лет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ли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политику, экономику, гуманитарные обмены, культуру, науку и технологии, образование.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партнером, с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о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чного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поддержива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контакты в дух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ряду с тесны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в сфере политики, развивал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В 2019 году объем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ревысил 22,3 млрд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примерно в 100 раз больше, чем 30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у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составлял менее 200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В Росс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олее 150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звивают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йск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 таких отраслях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к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е, судостро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о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сфере логистики и други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В то же время должен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е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достигнутые успехи, нынешний уровень двусторон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отражает в достаточной степени потенциал экономик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В дальнейшем нашим странам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прежнюю структуру двусторон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которой Россия экспортирует в основ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ставляет готовую продукцию, в том числе автомобили и товары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и комплектующие. Мы считаем, что в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е необходимо больше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виды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и при этом нужно такж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формы и углублять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за счет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пираясь на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которой обладают компании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Наши страны проводя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у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нда", целью которого будет развитие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таких отраслей для будущего, как инновацион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медицина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роме того, мы убеждены, что в случае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услугами и инвестициях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сужда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 наших стран, реальное двусторонн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ся во все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Несомненно, что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 30 лет лучше узнали друг друга, а вступившее в силу в 2014 году соглашение об отказе от визовых формальностей привело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увелич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взаимных визитов граждан наших стран.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ходится признать и то, что



Фото: Юрий Смитюк/ТАСС

уровень знаний друг о друге не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ий и сводится к клише и стереотипам. Что,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следует сделать, чтобы наши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стали ближе и лучше узнали друг друга?

Ли Сок Пэ: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торое заключило 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ной отмене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при поездках граждан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1 января 2014 года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соглашение о безвизовом режиме, количество взаимных визитов быстро возросло,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исло граждан двух стран, совершивших поездки, достигло 8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ак Вы правильно отметили в вопросе,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двумя народами. С этой целью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ших стран предприняли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ежде всего, лидер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объявили 2020 год "Годом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ших стран создал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комите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ю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во главе с вице-премьерам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едателей и разработали план,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более 360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роме 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наших стран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праздновании "Го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 2020-м и 2021-м годах по случаю 30-летнего юбилея. Мы очень сожалеем, что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торая охватила весь мир, мы не смогли провести намеченные важ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имо этого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2021 году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Русские сезоны". Я думаю, что в будущем году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ших стран продл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на 2021 год, я надеюсь,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глублению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Вы много лет прожил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ывали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и являетесь прекрас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России. Не могли бы Вы, господин посол, привести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того, что корейцам нравится в России, а что им неприятно или смущает. Что,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могут сделать Россия и россияне,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туристов?

Ли Сок Пэ: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корейцев больше всего поражает огромна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в 78 раз превышает размер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йцев, посещающих Москву, приятно удивляют больш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между зданиями и широкие тротуары, что делает их удобными для пешеходов. Также их завораживает красивая архитектура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Москва - Сеул, Р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дряют новую цифровую систему мониторинга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аболевших ОРВИ

Данные по амбулаторным пациентам начали заносить в специальную цифровую программу. Она позволяет анализировать клин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заболевших и определять их оптимальную маршрутизацию, помогая медработникам. С начала недели в новой системе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поликлиники №2 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дальнейшем эту практику распространят на вс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

— Бывает пациент теряется — когда ему проходить обследования, когда медики придут проверить его здоровье.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учитывает все этапы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прием специалиста, назначен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обзнов, контроль на дому. Это делается, чтобы в большом потоке обращений пациент не выпал из зоны внимания, находил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до полного выздоров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здраве отмечают, что в регионе сейчас идет сезонный подъем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РВИ,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коронавирусная инфекция,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пациент должен быть на особом учете.

—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этап всех изменений. Нуж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и пациент смог позвонить медицинскому работнику, задать вопрос по своему состоянию, если он заболел. Нужна ли скорая помощь или в его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 самому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иагностики. Чтобы дифференцировать эти случаи, будет внедр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функционал,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который, в том числе, курирует сфе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тестируют работу колл-центра. Он должен заработать до конца этой неде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бедила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их клинических практик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тмечен высокой наградо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ардиологии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как регион с лучшей клин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ой среди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 лучшие показатели работы санавиации сред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зволил спасти сотни человеческих жизней.

Только за 9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санавиацией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было доставлено 429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ло 100 из них имеют болезн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Оперативная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позволяет своевременно оказыв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помощь при инфарктах и инсультах. Многие из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быстрее переходят на этап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казатель количества эвакуаций стал лучшим в стране по итогам последних лет.

Клинические практики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оценивались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рдиология на марше!» и 60-й се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75-летию ФГБУ «НМИЦ кардиологии»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этой работы персональный наградной знак представлен главному внештатному кардиологу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судистого центра Марии Калашниковой.

— Награда — заслуга всех наших врачей,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эвакуации больных, ежедневных планерках, обсуждениях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тяжелых пациентов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Мария Калашникова. —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введен формат телеконсилиумо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удаленной коррекции терапии и привлечения авто- и авиатранспорта. Слаженность этих процесс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местах позволяют спасти жизнь человека иногда даже в самых сложных случая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тендует на право проведения WorldSkills Asia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WorldSkills Russia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писали и направили в секретариат WorldSkills Asia заявочную книгу на право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WorldSkills Asia в 2024 или 2026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Заявка России на проведение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Asia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креплена богатым и успешным опытом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формата и новых стандарт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лучае одобрения заявки, регион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центров подготовки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транах АТР,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 что систем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а большой стимул к развитию во время фина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8 году.

— Регион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У нас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од запросы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едущих сфер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деемся, что и WorldSkills Asia станет серьез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наших ребят, развития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цело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Роберт Ураз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метил работ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развитию системы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одель, которую создает Сахалин, достойна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в странах Азии.

— WorldSkills Russia всегда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не только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Одной из поставленных перед нами Президентом задач в рамках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движения в стране было создание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ходит в число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макро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здесь является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локомотива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подготовка и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зиат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воротами в Азию», — сказал Роберт Уразов.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ас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2016 году. Студентов начали обучать под запросы рынка труда, чтобы в дальнейшем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трудоустроить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ведущих сфер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Так, для компаний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разработаны 11 программ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К концу года подоб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ят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ля стро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пущено обучение по компетенции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е сформирована и согласована с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по внедрению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стандарта для должности «Технолог по добычи нефти». В гостиничной отрасли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завершится комплексный проект с базовым отелем «Мега Палас» по обучению сотрудников и разработке стандартов сервиса.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шел в топ-20 победителей финала VI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За го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алось подняться с 32-й строчк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рейтинга на 17-ю.

Рацион 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в Невельске проверили зампред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ни совершили внеплановый выезд в школы №2 и №3 города. Руководители лич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ачеством завтраков и обедов для учащихся, а также с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поваров. Регулярный контроль организации горячего питания в школьных столов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выполн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итан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меню, а пор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нормам СанПиНа. Дети отмечают, что еда вкусная. Кроме того, Владимир Ющук пообщался с поварами, которые ежедневно готовят завтраки и обеды школьникам.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о технологи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 показали пищеблоку, кухни и комнаты хране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 Мы видим, что помещения содержатся в чистоте, люди 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своей работе. Бесплатное школьное питание — это большая социальная значимая задача. Мы регулярно работаем с обращениями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ют на Единый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в основном они позитивны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нарушения выявлены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2. Еда в столовой оказалась недостаточно горячей. Руководству школы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устранить этот недостаток.

— Необходимо небольш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организации питания. Остаются отходы, дети не съедают порцию, хотя еда вкусная. Мы посоветовали коллега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ации питания, пересмотреть график с учетом вкусовых предпочтений ребят. К примеру, сытные порции, относящиеся к категории «вторые блюда», подавать ближе к обеду. А утром кормить детей сладкой кашей или сырниками,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питания в школах ведет Общественный совет родителей. Регулярно, один раз в месяц, мама или папа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дежурности завтрака или обеда.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блюд в школах, проводится регулярное анкетирование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Отмет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сплатно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горячим питанием учащиеся с 1 по 4 классы.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втраки и обеды з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сем школьникам (с 1 по 11 класс)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Кроме того, к льго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имеющим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го питания, относятся школьники из малоимущих,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семе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которой можно уточнить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бесплатного горячего питания в школах: +7 (4242) 46-59-36.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квесте «За пределами»

Интерактивная игра посвящена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отправляет к материалам Нюрнбергского процесса — главного суда над нацистами. В основе — воспоминания ветеранов,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веста «За пределами» выступают в роли член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м предстои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явление фальсифик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СМИ.

Игра пройдет 21 ноября, в 15:00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Доступны четыре языка —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испанский. Регистрацию можно пройти уже сейчас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http://intgame.ru/wwii>.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ы будут только стабильный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 устройство для ввода ответов (компьютер, ноутбук, планшет, смартфон), командный чат на любой удобной платформе.

Возможно участие как в команде из 2-6 человек, так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 Желаящим объединиться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telegram-канал квеста: @BeyondTheLimitsQuest. В день игры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смотреть трансляцию на YouTube и вводить ответы на сайте квеста.

Сценарий игры охватывает период с 1 сентября 1939 года по 1 октября 1946 года — от начал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о вынесения приговора главным военным преступникам на Нюрнбергском процессе. Квест состоит из семи связа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этапов и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прямым эфиром с участ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ведущего.

На каждом этапе игроки ждут видеовоспоминания очевидцев тех событий, исторические видеосправки — среди них будут прямые включения из Музея Нюрнбергского процесса, Герман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музея «Берлин-Карлсхорс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ушвиц-Биркенау. После участия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квеста — логическ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математическую загадку.

Побеждает команда или игрок, которые наберут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корости и правильности ответов.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бесплат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один из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веста выступает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вета молодежных и дет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России и Всемир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ыпускник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Целью проведения Квеста являетс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фальсификации истории и героизации нацизма,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 изучению истор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 5 ноября ежедневные рейсы в Москву выполняет только авиакомпания «Россия»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времен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услуг «Аэрофлота» выступили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едстоящие три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о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екратить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рейсов в связи с оптимизацией расход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Бюджет области сохраняет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Средства, высвобожд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екращ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Аэрофлота»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ервоочередные цели, в том числе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лись расходы на сфер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закупать тесты,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оборудование, лекарства, расширять премиальный фонд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 условиях борьбы с инфекцией нужно правильно определять приоритеты.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для нас — здоров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трансе отмет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из-за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лся. Нередко самолеты не были заполнены даже наполовину. На моск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 5 ноября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дочерняя авиакомпания «Россия». На моск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прежнему сохраняются единые плоские тарифы.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в Москву и обратно составляет 22950 рублей.

— Пассажиры, купившие билеты на рейсы «Аэрофлота», могут не переживать. Авиакомпания пересадит их на самолеты «России»,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 Поле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ежедневно. В дальнейшем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исходя из потребностей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прекращения продаж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билетов на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тольк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ли летать на самолетах «Аэрофлота» по льготным тарифам. Билеты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могли приобретать пассажиры младше 23-х лет, женщины после 55 лет и мужчины старше 60-ти лет, а также члены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инвалиды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лиц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동포 어르신 위한 '요리 한 스푼'

한평생 사할린 살다온 어르신, 마음에 꼭 러시아음식 매주 쿡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에는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해방 후에도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다.

영주 귀국 후 복지회관에서 동료들과 여생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정이 좋지 못해 제한된 생계비로 삼시 세끼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복지회관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사할린의 행복한 요리 한 스푼'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오랜 세월을 지낸 러시아의 음식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거동이 불편해 요리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사할린 문화 행사의 날' 맞이 바자회와 음식잔치를 열기도 했다.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 요리 교실은 사전에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주1회 원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하도록 운영됐다. 요리 교실 참여 어르신들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요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다양한 의견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요리 교실에 참여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꾸준히 요리 수업을 들은 한 어르신은 평소 어둡고 구석진 곳에 몸을 은신하며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해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안한 일상을 보내왔다.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복지회관 측은 요리 교실에 어르신을 참여시켜 불안감과 초조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어르신은 주변의 지지와 격려로 수업에 잘 적응해나갔고 동년배와 소통하며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이 걷히기 시작했다. 요리 교실이 마무리된 후 어르신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에 참여해 새로운 요리를 배우게 돼 아주 즐거웠다"며 "무엇보다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바람을 남겼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계자는 "요리 교실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역할을 부여해 자아존중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진행됐다"며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며 우리에게 음식이 주는 행복과 충만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일보)

고려대 동아리 '카란다쉬',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에 한-러 병기 전래동화책 지원

고려인 아동 한국어 교육 지원 위해 책
기증한국교육원 "고려인 학생 많은
현지 5개 학교에 전달 예정

한국문화 배우는데 큰 도움 기대"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원장이병만)은 고려대학교 동아리 '카란다쉬'(Карандаши)로부터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한 전래 동화책을 지원받았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카란다쉬'는 국내외 고려인 동포의 언어·문화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대학생들이 모여 기획한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산하 봉사 동아리(지도교수 노어노문학과장 김진규)이다.

카란다쉬 4기(회장 강영언)는 고려인 아동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한 전래동화책을 출판했다. 이번에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에 지원한 동화책에는 '수로왕 이야기', '열두 띠 이야기', '삼 년 고개' 등 전래동화 3편과 '설날이 왔어요'란 창작동화 1편이 실렸다.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은 카란다쉬로부터 지원받은 동화책을 고려인 학생들이 많은 5개 학교에 지원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카란다쉬는 지난 2018년에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에 한-러 병기 전래동화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병만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장은 "2018년에 이어 카란다쉬 전래동화 나눔 프로젝트 지원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동화책에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카잔서 현지 중등교사 대상 '한국 바로 알기 세미나' 열려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러시아 카잔지역 초·중·고교 교사의 한국사회와 문화교육' 주제

지난 10월 31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에 있는 카잔연방대학교에서 현지 교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제5회 카잔 교사 세미나'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가 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 고영철)이 후원하는 행사로, 한-러 양국 교과서에 실린 요류를 시정하고 러시아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한국과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러시아 카잔지역 초·중등학교 교사의 한국사회와 문화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현지 중등교사와 한국인 전문가, 그리고 러시아의 한국학자 등 12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원장의 인사말과 카잔연방대 파유르스키 드미트리 부총장 그리고 카잔연방대 하이루트디노프 라일 국제관계대학장의 축사가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로 박종권 모스크바 겨레일보 대표의 '러시아에서의 한식문화 발자취', 고영철 카잔연방대 교수의 '1863년-1910년 카잔에서의 한국인 흔적', 스코벨치나 엘레나 로마첵스키 리체이 교장의 '정규 및 추가교육 환경에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학생의 관심 발전'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서 일반 발표로 누구마노바 루드밀라 따파르쿱교육개발원장의 '추가전문교육 시스템에서의 다문화 교육환경 모델', 나비에프 루스탐 카잔법과대 교수의 '따파르스탄 공화국의 한국 역사와 문화의 여러 연구', 김영숙 카잔연방대 교수의 '한국의 명절 추석', 기바돌린 마라트 카잔연방대 교수의 '러시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한국 경제사', 마르피노프 드미트리 카잔연방대 교수의 '교육프로젝트로서의 저술번역: 금장대의 유교와 사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일반 발표 후에는 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의 후원으로 종이접기 교육을 희망한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준혁 종이접기영재마스터의 영상 강의를 현지 스태프가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종이접기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후원으로 지난 5월부터 러시아 및 CIS지역 중등학교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카잔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식'도 열렸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한가위와 추석

추석을 순우리말로로는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가위가 넉넉하고, 행복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입니다. 설날도 명절이지만 아무래도 최대의 명절은 추석입니다. 추석이 왜 최대의 명절일까요? 추석에는 추수를 통해 곡식이 넉넉하고, 과일이 넉넉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또한 추석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에 행복한 날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조상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감사의 날이고 조상의 날이기도 한 겁니다.

한가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3대 임금 유리이사금 9년에 한가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의 6부를 둘로 나누어 7월 16일부터 한 달 간 매일 밤 10시까지 길쌈을 해 그 후 8월 15일이 되어 진 쪽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 이긴 쪽에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노래와 춤과 온갖 오락이 벌어졌으니 이를 일러 가배(嘉俳)라고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배라는 말에서 가위, 한가위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신라의 가배가 현재의 추석으로 이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추수를 감사하던 축제와 가배가 만나서 현재의 추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추석을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가운데라는 표현이 중세국어에서는 비읍 순경음이 들어간 단어로 나옵니다. 따라서 가배와 가운데라는 표현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가배라는 말에서 가운데라는 의미를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배(嘉俳)에서 가위로 바뀌는 과정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경상도 방언에서 비읍 발음이 우로 바뀌는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덩다와 같이 비읍 불규칙 용언이 그렇습니다. '더워'를 [더버]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의 예처럼 중세국어의 비읍 순경음이 우로 바뀌는 예도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상도 방언에서 아직도 비읍 발음이 남아있는 어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가배와 가위가 방언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변화를 찾아가는 게 흥미롭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배의 의미를 삼국사기의 고사에서만 찾아보면 '값'다는 말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값한다는 말은 남에게 빌린 것을 도로 준다는 의미입니다만,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은혜를 값다와 같은 표현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길쌈에 저서 빛이나 은혜를 값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 조상의 은혜를 값는 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추론으로 보입니다. 가배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가위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위라는 말이 현대어에도 동음이의어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물건을 자를 때 쓰이는 '가위'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위 누르다'라는 표현 속에 보이는 어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위 누르다 속에 나타나는 가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전에 제가 쓴 글에서 가위는 귀신이나 신에 해당하는 우리말이었을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배와 한가위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위와 귀신을 나타내는 가비, 개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도깨비나 허깨비 등에 흔적이 보입니다. 도깨비는 '덧 + 가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허깨비는 '헛 + 개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비, 개비를 귀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깨비나 허깨비는 좋지 않은 귀신일 수 있지만 귀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배나 한가위라는 말이 귀신, 신을 나타내는 '가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추석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모시는 날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되어도 가족도 친척도 제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날이고 기억의 날입니다. 추석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옛 추억을 떠올려보는 귀한 시간이기 바랍니다. 혹시 뵈기는 어렵더라도 말합니다. 사진도 보고 비디오도 보면서 추억을 가족이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행사를 마무리하며 산장에서 다과회를 열어 자신의 감상을 나누고, 새로운 일들로 만나기로 했다.

"Родник" посадил дерев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31 октябр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дник" провел акцию "Посади свое дерево"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ботаническим сад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лонтеры и друзья "Родника", активисты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 экологичный" — всего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 вдохновились идеей посадить деревья и кустарники и помоч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хранить коллекционные растения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го было высажено более 60 коллекционных растений — рябина, груша, сосна, клен, грушевидная разновидность бархата амурского, сердцевидная липа,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берез, слив, шиповника и др.

В завершение все собрались на чаепитие с пирогами в каминном домике, где обсуждали свои впечатления и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 новых встречах.

러시아 연방 학생 3분의1이 전자기기에 8시간 이상을 소비

러시아 연방 학생들의 약 27%가 하루 8시간 이상을 전자

기기와 붙여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맥시멈 에듀케이션(최대 교육)' 교육센터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사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이에 5학년-11학년의 학생들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청소년 조사 대상자의 27%가 하루 8시간 이상을 전자기기 사용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학생의 18%가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15%는 하루 평균 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연구센터에 기록되었다. 학부모 조사대상자 중 32%가 전자기기 사용에 하루 8시간 이상을 소비했고, 성인 17%는 하루 평균 3시간, 16%가 하루 평균 약 4시간을 소비했다. 그럼에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 조사 대상자의 99%가 휴대전화를 가장 인기있는, 안정적인 기기로 꼽았고 그 다음은 노트북으로 성인 84%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태블릿은 학부모의 28%, 스마트 워치는 18%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학생의 86%는 노트북과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 태블릿은 27%, 스마트워치는 15%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Каждый третий школьник России тратит на гаджеты 8 часов и больше

Около 27 процентов школь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липают» в гаджетах от восьми часов в день и дольше. Такие данные опубликовал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Maximum Education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бственного опрос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ает ТАСС.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с 26 по 28 октября.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тысячи родителей и учеников с 5 по 11 классы.

«27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подростков тратят на гаджеты восемь и более часов в день. 18 процентов школьников тратят на гаджеты в среднем три часа в день, 15 процентов — в среднем пять часов в день», — говори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центра.

Восемь и более часов в день на гаджеты тратят порядка 32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родителей школьников. Еще 17 процентов взрослых уделяют этому в среднем три часа в день, 16 процентов — около четырех часов в сутки. При этом,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родители школьников назвал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им пользуются 99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Далее следует ноутбук, которым пользуются 84 процентов взрослых. Планшеты используют 28 процентов родителей, умные часы — 18 процент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дростков, то 99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пользуются мобильными телефонами. Ноутбуки и персональные компьютеры используют 86 процентов школьников, планшеты — 27 процентов, умные часы — 15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